

전남대·조선대 의대 신입생 지역 인재 70% 뽑는다

전대 126명 중 99명 '전국 최고' 조선대 125명 중 88명 모집 9월 접수·12월 합격자 발표 전국 3123명 '증원 전 수준'

내년도 의대 정원이 전년 대비 32% 줄어든 3123명으로 확정됐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도 의대 증원 전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두 대학 신입생 중 10명 중 7명은 지역 인재로 채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6학년도 의대 대입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공개하고 내년도 전국 의대 39곳의 모집 인원을 3123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수시 모집에서 2115명(67.7%), 정시 모집에서 1008명(32.3%)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4학년도(3113명)에 비하면 10명 많은 수준이며, 의대 정원이 증원된 2025학년도(4610명)에 비하면 1487명 줄어든 수치다.

같은 날 전남대와 조선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변경 사항이 적용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은 각각 126명, 125명으로 정해졌다. 두 대학은 의대 신입생의 70여%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남대 의대는 내년도 입학 정원 126명 중 78.57%인 99명을 지역인재전형과 지역기회균형전형으로 뽑는다. 수시 모집(93명)에서는 지역인재 78명, 지역기회균형 3명, 학생부종합 10명, 농어촌 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시(33명)에서는 수능 일반 15명, 지역인재 18명을 뽑는다. 조선대 의대는 신입생 정원 125명 중 69.29%인 88명을 지역인재전형과 지역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수시(102명)에서 지역인재 68명과 지역기회균형 3명을 선발하며, 정시(30명)에서는 지역인재

1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국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초반인 데 비해 두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은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대는 지난해에도 165명 중 130명(78.8%)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전국 최고 비율을 보인 바 있다. 두 대학의 의대 신입생 정원과 지역인재 비중은 2024학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대학 모두 수시모집에서 학생기록부 심사 외에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 중 3개 영역 점수 합 5등급 이내 충족 등 최저등급 기준을 두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경우 광주·전남·전북 소재 호남권 고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비수도권에서 나와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오는 9월 중 원서 접수를 시작해 오는 12월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28학년도 수능 2027년 11월 18일 시행

국·수·탐, 선택 대신 통합·융합형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7년 11월 18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과 시험영역 등을 1일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시행되는 첫 시험이다. 과목별 유효리를 해소하고자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으로 치러진다.

특히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골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공통과학을 필수 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영역별 문항과 시간을 보면, 국어·수학·영어는 현행과 동일하고 탐구는 현행 '과목당 20문항·30분'에서 '25문항·40분'으로 바뀐다.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40분'에서 '20문항·30분'으로 줄어든다. 수능 성적 통지일은 2027년 12월 10일이다. /연합뉴스

제석산 구름다리 추락사 줄어들까

광주 남구, 100kg 하중 견디는 와이어망 설치키로

광주시 남구가 추락사가 잇따랐던 제석산 구름다리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남구는 오는 8월까지 '제석산 구름다리 추락방지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구름다리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물망은 2층으로 설치되며, 기본 하단 그물망 위에 추가로 상단 측면망을 덧대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물의 넓이는 상단 1322㎡, 하단 548㎡ 규모다. 그물의 자재는 골프장 등에서 사용하는 초록색 망으로, 와이어를 연결해 고정하면 체중 100kg의 성인이 떨어졌을 때의 충격 하중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남구 설명이다. 현재 남구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발주를 넣은 상태로 계약이 마무리되는 즉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달 중 착공하면 7~8월 사이 완공될 전망이다. 남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범의예방도시 디자인 사업'을 통해 2억원 예산을 확보했

으며, 이 중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남구는 예산은 CCTV와 주변 조명 등 시설물 설치에 순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물망 설치 도중 현장 상황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예비비 성격으로 일부 예산은 남겨둘 예정이다. 앞서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지난 1999년 완공 이후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7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지난 2월과 4월 2건의 추락사가 발생했다. 남구는 지난 2020년 난간 높이를 기존 1.2m에서 2m로 높였고 난간 상단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예방 조치에 나섰으나, 그 이후로도 추락사가 잇따르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남구는 해당 시설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순찰과 사고 예방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

법원, '영업 정지' 집행정지 결정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분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

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전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HDC현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분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할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물안개길 시원해요 한낮 햇살이 따가운 1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안개길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광주 사고다발구역·변화가 교통위반 집중 단속

광주경찰, 오늘~30일

광주경찰이 6월 한 달 동안 상무지구, 수완지구 등에서 교통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와 캠코더를 이용해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과속,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여름철이면 이용률이 높아지는 전동킥보드, 이륜차에 대한 안전도 미착용 등 교통위반행위도 단속한다. 경찰은 최근 3일여만에 교통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1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서는 5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량이 중앙

선을 넘어 맞은 편 차량 3대를 잇따라 충격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께에는 60대 B씨가 광주시 동구 선교동의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지난달 27일 밤 11시 10분께에는 20대 C씨가 광주시 남구 승촌동 신가고 인근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자전거를 끌고 가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동행

NH 크릭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숙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햇살론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 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